



세계연합신문



문재인 대통령 “전국민 고용보험 기초 놓겠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사회적 합의로 점진 확대”

“고용안전망 확충은 경제의 역동성 위해 필요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전국민 고용 보험제도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 연설에서 “고용보험 적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우리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한

단계 높여겠다”고 밝혔다. 이어 “실직과 생계위험으로부터 국민 모두의 삶을 지키겠다”며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

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고용보험 대상을 단계적으로 넓혀 나가겠다”며 “국회의 공감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입법을 통해 뒷받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직업 훈련 등 맞춤형 취업을 지원하며 구직촉진 수당 등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라며 “취업을 준비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의 국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고용안전망이다. 경사노위 합의를 거쳐 국회에 이미 법이 제출되어 있다. 국회가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용인 역삼(구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헛발질에 또다시 미궁속으로

10여 년이 넘도록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 사업에 KB증권 및 현대차증권이 보유한 예비지 양도청구 및 위수임 계약에 따른 사업권리를 양수한 (주)세정파트너스가 지난 5월 7일 현장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감에 따라 대다수 조합원들이 바라는 대로 빠른 사업진행이 기대되었으나 조합측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다른 PM사업자에 대한 제공모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다시금 허송세월로 시간만 소비하는 처사가 아닌지 용인시를 비롯한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끊임없는 시선으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현재 KB증권 및 현대차증권은 조합 예비지권을 가압류·가처분을 한 상태이고, (前)시·대행사인 (주)다우아 이스콘으로 하여금 위수임 계약을 양수받아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바탕으로 사업권리를 양수한 (주)세정파트너스가 지난 5월 7일 현장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들어감에 따라 대다수 조합원들이 바라는 대로 빠른 사업진행이 기대되었으나 조합측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또다른 PM사업자에 대한 제공모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다시금 허송세월로 시간만 소비하는 처사가 아닌지 용인시를 비롯한 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은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끊임없는 시선으로 원성을 자아내고 있다.

매되어 양·수도 절차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때문에 조합측의 PM사업자 공모는 효력을 상실할 것이고 NPL채권에 포함된 사업권등에 대한 공탁해지도 전혀 불가능 하다고 전하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조합측은 왜 이렇게 앞뒤 분별없는 그릇된 처신을 지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동안 수많은 업체들에게 지칠대로 지쳐있는 대다수 조합원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조합측은 더 이상의 무리수를 두지 말고 채권단 문제를 해결하는 업체와 손을 잡고, 빠른 사업제개를 바라는 실정이라며 앞으로는 조합 주변에서 이권을 바라보며 기생하는 사람들 때문에 조합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실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정우성 기자 herowos@naver.com



지난해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원 임시총회 현장사진.

보담이피에스
Bodam Engineer Professional Success

054-463-7738

블랙박스,통신모듈PBA조립(민수분야) 군용무전기,레이더RF모듈부품,전장해네스류(방산분야) 제조 전문

주요상품

<블랙박스 및 PBA> <군용 무전기 RF 모듈> <군용 레이더 부품류>

경북 구미시 1공단로6길 141 (지이티 시스템 B동)

‘웅동학원 비리’ 선고 하루 앞두고 변론 재개

검찰 “조국 동생, 범행 설계자이자 최종 실행자·주도자” 징역 6년 구형



‘웅동학원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소송과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법원의 첫번째 판

웅동학원 채용비리·허위소송·증거인멸 등 혐의

일 오전 10시 1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지만,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변론 재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2일 조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일가는 웅동학원을 사유화하고 조작된 증거로 법원을 기망, 100억원의 허위채권을 취득했다”며 “이 같은 허위 채권을 갖고 사업 밀천으로 활용했으며, 교사 지위를 사교 팔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 후 증거인멸을 시도, 공범을 도피시키

는 범행 이후의 정상 또한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학교재산이라 가져가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약이 올라 무엇이든 받고 싶었을 뿐 작성경위나 진위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소송 관련 혐의는 부인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한 것은 제 불찰이고 잘못된 것은 깊이 반성한다”며 “교사 채용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배임수재, 업무방해) ▲허위소송(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다.

유문성 기자 tantan66@naver.com

‘25살 동갑’ 갓갓·조주빈… 경찰 “연결고리 확인하겠다”

“경북청 수사결과 나오면 정보공유 예정”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행의 원조격으로 알려진 n번방 ‘갓갓’을 검거하면서, 박사방 조주빈(25·구속기소) 사이의 연관성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11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갓갓을 조사 중인) 경북경찰청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박사방과의 연결고리가 있는지 정보공유를 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특별한 연결고리는 없어보인다”고 설명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갓갓과 조주빈은 울초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다른 회원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바 있다.

갓갓은 당시 조주빈에게 “나는 절대 안 잡힌다”, “재미로 하는 일”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갓갓’으로 불리는 n번방 운영자 A(25)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9일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소환 조사하던 중 자신이 갓갓이 맞다는 자백을 받고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는 SNS에서 노출 사진 등을 올리는 일탈 계정에 운영진을 가장해 URL을 보내 재로그인을 요구, 여기에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통해 개인정보를 캐낸 것으로 알

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틀어쥐고 협박해 개처럼 짓거나, 남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게 해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 1~8번방에 돈을 받고 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체적인 범죄사실 등을 언론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A씨의 범법 행위에 대해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특히 A씨가 문화상품권 등을 통해서 n번방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유료회원 추적이 어떻게 될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경찰은 조주빈이 비트코인을 받고 운영한 박사방 유료회원을 추적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n번방의 이용자 규모가 과연 얼마나 될지, 얼마나 밝혀질지도 관심이 쏠린다.

박사방의 경우 이날까지 40여명이 유료 회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경찰은 계속해서 유료회원을 추적 중이다.

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디지털 성범죄 관련 검거자 수는 430명으로 이 가운데 70명은 구속됐다. 주요 성착취물 제작·유포 사건과 관련해서는 173명이 붙잡혔다. 제작·운영자 14명, 유포자 9명, 소지자 143명 등으로 구분된다.

이광민 기자 hanminilbo@daum.net

법무부,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지원하기 위해 간이회생제도의 부채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법무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간이회생제도는 소액영업소득자가 일반적인 회생 절차에 비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회생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회생 신청부터 인가 결정까지 기간도 평균 180일 정도로 비교적 짧다.

기존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을 회생채권 및 회생담

보권 총액이 30억원 이하인 기업과 자영업자만이 간이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50억원까지 늘어나 더 많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경영자가 간이회생절차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부채 한도를 50억원으로 확대할 경우 최근 5년간 서울회생법원 사건 기준으로 회생사건의 약 48%가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경복 기자 axoway1212@naver.com

신양훈련 이라더니 인분먹이고 공동묘지 보낸 교회…경찰수사 착수

신양훈련을 한다며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여 논란을 일으킨 서울시 동대문구 A교회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종로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당 교회에 대한 고소대리인,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업무상 과실 치상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라며 “증거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며 철저히 수사해 의혹 전부를 밝혀내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폭로했다. 이후 피해자들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열고 A교회 담임목사에 대한 법적 처벌을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A교회는 신도들에게 리더십 과정이라며 망우리 공동묘지에

서 매 맞기, 유증업소에 가서 육 먹을 때까지 복음 전하기, 구더기 또는 대변 먹기 등을 강요했다. 피해자 중에는 뇌출혈로 쓰러져 장애관정을 받은 환자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지난달 30일 서울 북부지검에 사건을 접수했다. 서울 북부지검은 동대문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교회와 담임목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청원 글도 올라왔다.

작성자는 또 담임목사에 대한 부동산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또 “담임목사 명의로 매입한 부동산, 농업회사 법인 구입 부동산, 대안학교 건물 차명 매입 등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교육청과 고용노동부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학교를 운영하면서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포천시의회
시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의회

‘검·언유착 의혹’ 채널A 기자, 검찰 출석

검찰 “소환조사 아닌 압수물 절차 참여 관련”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찰 간부의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해당 기자가 압수물 관련 절차 참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채널A 소속 기자 이모씨는 이날 오전 검찰의 압수물 분석 절차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다만 이번 출석은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참관을 위한 것으로 정식 조사는 아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추후 이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는 지난달 28일 이씨 자택과 채널A 본사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 사건 취재와 관련한 문서 및 디지털 자료 등을 확보했다.

앞서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3월 31일 채널A 기자인 이씨가 신라젠 대주주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 측과 접촉해 유시민 노



종합편성채널 채널A 기자들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1박2일째 막는 가운데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채널A 본사 스튜디오의 불이 꺼져 있다.

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려 하고 강요했으며,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들어 그를 압박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했다. 아울러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관련 의혹도 제기했

다. 이와 관련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달 7일 이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부총리 측도 MBC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인 조사에 이어 지난 1일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를 상대로 지인을 보내 이씨를 만나게 한 경위와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관련 의혹을 보도한 MBC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검찰은 이씨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과 채널A 기자들과 이 전 대표 대리인인 지씨의 대화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 채널A 기자들과 성명불상의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내지 대화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MBC는 지난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채널A 기자들과 성명불상 검찰 고위 간부의 통화 내지 대화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은 채널A 또는 해당 기자에게 제출을 요구해야 할 사항이며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며 “채널A 기자들과 지씨의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제보자가 MBC에 제공한 것으로 취재원 동의 없이 요청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행주 기자 phj1654911@naver.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대국민 사과는 앞서 지난 2월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 위원회가 삼성 최고 경영진에게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준법의제로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 등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 이 부회장이 국민들 앞에서 발표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막바지 다다른 ‘삼성바이오’ 수사…

검찰, 이재용 이번주 소환하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분식회계에서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변질 수사가 1년 반 만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의 검찰 출석은 이번주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삼성 수사는 당초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 분식회계로 고발하면서 시작했다. 증선위는 2015년 삼성바이오가 지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사로서 관계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면서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4조 50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지회사였는데,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두 계열사의 가치를 부풀려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국면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 취득이 용이해지는 구조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이 합병되면서 단숨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가 됐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한층 용이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에서 분식회계를 가리기 위한 대규모 증거인멸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해 1심 판결만을 받은 상태다.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고위 임원들은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본안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그동안 실무자인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를 비롯해 승계작업 ‘윗선’인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최지성 옛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미전실 차장(사장)과 김종중 전략팀장(사장) 등도 줄줄이 소환조사를 받았다. 사실상 당사자인 이 부회장 소환 조사만 남은 셈이다. 검찰은 이날도 삼성바이오 사장 당시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의 유상호 부회장을 소환하는 등 이 부회장 조사 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다만 검찰은 이 부회장을 공개 소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한 뒤 최종적으로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송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군산해경, 음주운항 일제단속 나선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해상 및 육상 각 항포구에서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관내 입출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이달 1~8일까지 음주운항 집중 계도 활동을 벌여왔으며, 9일부터는 함정과 과출소를 비롯해 특별단속반을 꾸려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그간 도로교통법과 달리 해상 안전법은 일률적으로 처벌 기준을 정하고 있었는데, 오는 19일부터 해상안전법 개정에 따라 음주운항 처벌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처벌 기준이 세분화되고 벌칙도 강화된다.

해상안전법상 음주운항 측정 단속 기준은 현행 0.03% 이상이라는 단

일 기준에서 0.03~0.08%, 0.08~0.20%, 0.20%이상으로 세 단계로 구분하고 처벌 수위는 현행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최근 5년간 군산해경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29건으로, 15년도 9건에서 16년도 8건, 17년도 5건, 18년도 3건, 19년도 4건으로 매년 꾸준히 감소했다.

조성철 군산해양경찰서장은 “음주운항은 사고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물적 피해와 해양환경오염 등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단속해 해양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섭재 기자 tosjr@naver.com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해양영토 수호 현장 실습

신입경찰과정 학생 주권 수호 의지 다지기 위해 독도 방문

해양경찰교육원(원장 고명석) 24기 신입경찰 학생들이 우리나라 최동쪽 영토인 독도(獨島)를 찾아 해양주권 수호 의지를 다졌다.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신입경찰 학생 등 100여 명은 해양 영유권 학습과 주권 수호 의지를 다지기 위해 독도를 방문했다.

4,200톤급 실습함(3011함)을 타고 이날 4일 여수에서 출항한 신입경찰 학생 등은 함상에서 항해장비 운영과 해상사격 등 현장 적응 실습을 진행했고, 6일 동해 영도 끝단인 독도에 상륙했으며 오는 8일 여수로 복귀한다.

신입경찰 학생들은 이날 우리가 아끼고 지켜야 할 독도에 직접 발을 딛고 국토 수호 의지의 상징인 망양대에



올라 직접 독도를 느껴보고, 느낀 점을 현장에서 작성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을 인솔한 실습함 문제제기 함장은 “학생들이 해양 주권 수호 의지를 다질 수 있도록 뜻깊은 해양영토 수호 현장 방문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보행중 스마트폰 사용은

사고로 이어지는 지름길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안전 및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며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제, 때와 장소에 맞는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으로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경북도, 홀로그래프 기술 중심지로 도약한다

과기부 "홀로그래피 기반 측정/검사 핵심 기술개발" 사업 선정 구미 4공단 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홀로그래프 기술 확산 기대

경상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홀로그래프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의 총괄과제인 "홀로그래피 기반 측정/검사 핵심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49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홀로그래피 기반 측정/검사 핵심 기술개발 사업"은 홀로그래프 기술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의 불량 유무를 3차원으로 사전 검사함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72억원(국비 49, 도비 1.96, 시비 7.84, 민간 13.18) 규모로 4년간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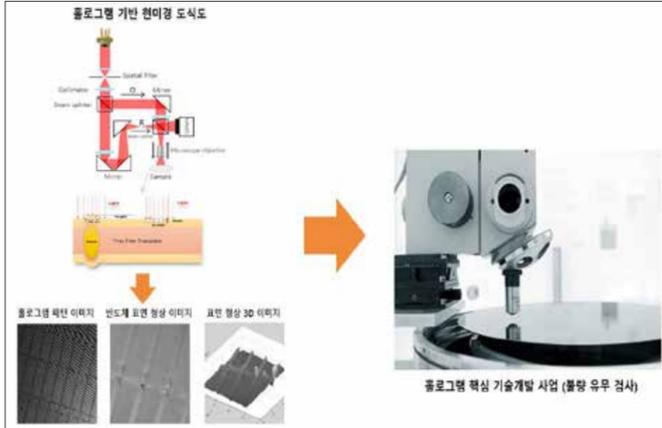
일반수출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 자립도 개선 품목인 반도체 웨이퍼 나노소자의 검사 장치 부문으로, 도내기업 기술 자립도 향상 및 일반 소재 부품 장비 수입 대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에 민간 파트너로 참여한 ㈜구엔지니어링은 구미 4공단 내 디스플레이 공정 장비 및 웨이퍼 불량 검사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다.

또한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제56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3천만불 수출탑을 수상한 글로벌 강소기업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업선정으로 그동안 구미지역 대기업 이탈 및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상길 경북도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홀로그래피 기반 측정/검사 핵심 기술개발 공모사업 선정으로, 구미가 국내 전자산업 메카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홀로그래프 기술 확산으로 도내 수요 기업들에게 새



로온 일자리 창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홀로그래프 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6월 총사업비 1,818억원 규모로 경상북도와 전라북도가 공동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5대 핵심 기술개발사업(1,506억원)과 홀로그래프

사업화 실증사업(312억원)으로 추진된다.

홀로그래프 기술개발사업은 '20년~'21년 기초 연구와 기술개발이 진행되며, '22년~'27년까지 개발한 기술로 홀로그래프 사업화 실증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김포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재난기본소득 더하면 147만 원 지급
18일부터 연계은행 읍면동에서 신청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의 김포시 지원금이 확정됐다.

김포시는 경기도와 함께 이미 개인당 재난기본소득 15만 원을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 부담금을 제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 87만 1,000원이다.

김포시 4인 가구의 경우 87만 1,000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김포시와 경기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4명의 재난기본소득 60만 원을 포함해 총 147만 1,000원을 받게 된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2020년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및 건강보험료상 동일 생계 가구원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신용 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충전하거나 김포페이(모바일)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된다.

시는 11일부터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18일부터는 각 카드사 연계 은행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초기 신청자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대주 기

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요일제를 실시한다.

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 및 페이지북,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병자한 보이 스피싱, 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편 김포시는 일반 신청에 앞서 기초생활보장 생활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등 취약계층 주민 1만 4,000여 가구에 모두 58억여 원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김포시의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과 지역 상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포/차역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출퇴근 시간 교통량 늘었다

수원시, 주요 간선도로 13개 지점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교통량 측정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수원시 주요도로의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가 1월 6일~12일(국내 코로나19 발생 전)과 2월 24일~3월 1일, 4월 6일~12일, 4월 20~26일 네 차례에 걸쳐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량을 측정할 결과, 4월 출근시간 교통량은 1월보다 8~9%, 퇴근시간 교통량은 7% 증가했다.

출근시간 교통량은 4월 초(6~12일)는 1월보다 8%, 4월 말(20~26일)은 9% 늘어났다. 퇴근시간 교통량은 4월 초와 4월 말 동일하게 7% 늘어났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바 있다.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늘어나면서 출퇴근시간 교통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도시안전통합센터는 효원지하차도(경수대로)·신명아파트 앞

(중부대로)·신대저수지 앞(광교호수로) 등 13개 지점 도로에서 낮, 야간, 주말, 출근 시간(7~8시), 퇴근 시간(18~19시) 교통량을 도로에 매설된 루프 검지기로 측정했다.

낮 시간(13~14)·야간(21~22시)·주말 교통량은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 말에(2월 24~3월 1일)에는 1월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는 1월과 별 차이가 없었다.

2월 24일~3월 1일 낮 시간 교통량은 1월보다 11%, 야간 교통량은 16%, 주말 교통량은 22%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4월 말 낮 시간 교통량은 1월보다 0.3%, 야간 교통량은 1% 감소했고, 주말 교통량은 오히려 4%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시민들이 코로나19 발생 전 일상으로 어느 정도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대중교통 기피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고, 외출이 늘어나는 계절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통량 감소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수원/유기서 기자

경북도 전국 근로자 3만명 휴가지원사업 추진

문체부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연계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경북도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2020 근로자 휴가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전국 근로자 및 가족 3만 명을 경북으로 유치 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 중인 「2020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쉼표'가 있는 '삶'을 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해 기업과 정부가 전국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근로자 12만명이며, 본인 부담금 20만 원 부담 시 기업에서 10만 원, 정부에서 10만 원의 휴가비를 지원 받게 된다.

프로모션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3만명 이상의 근로자 및 가족을 경북으로 유치해 지역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가비 지원 근로자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전국 관광상품을 구매하는(40만 원)

방식이며, 온라인 몰 내「경북 관광상품 특별관」을 조성해 경북 관광상품(숙박, 패키지여행, 입장권 등)을 보다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북 관광상품 특별관은 오늘(5월 11일)부터 오픈되며, 경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북 e-커머스 관광상품의 계절별 맞춤형 관광상품을 온라인 몰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한편, 경북도는 지역관광 조기 활성화를 위해 휴가자 지원사업 외에도 주요 관광지 입장료·관람료 면제, 여행업·숙박업 할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북 관광 그랜드(Grand) 세일'을 5월 하순부터 시행한다. 만 원으로 버스를 타고 경북을 재미있게 여행하는 '만 원으로 경북 여행', '전국 순회 관광 로드쇼'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가 큰 상황 속에서 이번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우리 경북도가 참여해 3만명 이상의 전국 근로자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관광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여주시, 8월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사전홍보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소유권 이전, 시민 재산권 행사 제고



여주시(시장 권오봉)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전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조법은 과거 일제 강점기 해방과 한국전쟁 등으로 소유권보존 미등기 또는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시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시민은 시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민복지과에 접수하면 된다.

동지, 현장조사, 공고 절차 등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등기 신청을 위한 확인서를 발급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특조법이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되는 만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많았던 시민들이 특별법 시행기간 내에 모두 소유권을 받을 수 있도록 법 시행준비와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현재까지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상황이다.

여수/김상면 기자

(주)월드TNS는 방산장비 부품들을 설계 개발 및 정비 전문업체 입니다.

수요군의 요구에 의거 오리콘 등 대공포 계열의 광학장비 및 시험장비 그리고 케이블류 및 배선문치를 생산함에 있어 완벽한 만족 제공을 목표로 설계 및 생산에 임직원 모두가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Start Your BUSINESS

(주)월드TNS

주요상품

TAS-970K
자동방향조정기

화포시스템 연동 시험기

출력전원모듈

주거래처

방위사업청

육군군수사령부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로 185-48
Tel) 054-604-1692
http://worldtns.co.kr

수원시, 임시 생활·검사시설 통합 운영한다

염태영 시장, 이선주 선거연수원장에게 감사패 전달 철저하게 격리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로 2차 감염 막아

경기 수원시가 무증상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과 확진자의 접촉자 임시생활시설을 통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임시검사시설로 활용했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지난 10일 사용을 종료했다.

임시검사시설과 임시생활시설(수원유스호텔) 입소자가 감소하면서 통합 운영을 결정했다.

임시생활시설 입소자 수는 지난 4월 21일 이후 10명을 넘지 않았고, 5월 10일에는 2명이었다.

임시검사시설 입소자 수도 5월 이후 20명 이하였다. 수원유스호텔에는 30여 명이 입소할 수 있다.

무증상 해외입국자 중 진단검사 희망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을 때까지 수원유스호텔에서 머물 수 있다.

수원시는 해외입국자 임시검사시설을 3월 26일부터 전국 최초로 운

영하기 시작했다.

입소자는 검체를 채취한 후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설에 1~2일 머물렀다.

첫날 26명이 입소한 것을 시작으로 5월 10일까지 46일 동안 921명이 임시검사시설을 이용했다.

많은 때는 하루에 46명이 입소하기도 했다.

임시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은 현재 4명이다.

진단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저히 격리해 추가 감염을 막았다.

염태영 시장은 지난 11일 선거연수원을 찾아 이선주 선거연수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염태영 시장은 "임시검사시설에서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철저히 격리한 상태로 진단검사를 한 덕분에 2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며 "시설을 이용하도록 지원해주신



이선주 원장님을 비롯한 선거연수원 직원들, 주변 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선거연수원 시설을 보수하고, 해외입국자들이 이용했던 객

실을 방역·청소했다.

침구 세트도 지원했다. 선별진료소가 설치됐던 공간(주차장)은 아스콘으로 포장할 예정이다.

수원/유기서 기자

봉화요양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지원

5월 가정의 달 맞이 440명 대상 어르신 건강기원 다육화분 전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봉화요양원에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춘양권역(춘양, 법전, 소천, 석포, 재산, 명호) 독거 어르신 44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원 다육화분을 전달했다.

건강기원 다육화분 전달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고립된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생활지원사가 직접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여 다육화분을 전달하고 정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강석좌 봉화요양원장은 "다육화분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활력을 찾고, 정서적인 위안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많은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년 3월부터 신규 신청 예정이었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잠정 연기되었으나 지난 5월 6일부터 재개되었으며 보다 촘촘한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돌봄 기능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봉화/정승초 기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자동차극장 열어 하남문화재단, 5월 자동차극장 운영

하남문화재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하남시민들을 위해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자동차극장 하남?>을 처음으로 개최한다.

이번 자동차극장은 하남도시공사의 후원금과 스타필드하남의 장소 제공 등 3개 기관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코로나19로 집콕 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장소는 스타필드하남의 주차장에서 개최되며, 일정은 5월 11일(월)부터 5월 29일(금) 까지 평일만 총 15회 진행한다. 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시작하며, 회당 100대의 차량이 관람가능하다. 이번 자동차극장의

특징은 고화질의 빔프로젝트(레이저 3만 ANSI) 제품을 사용하여 고화질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5월 11일 온가족이 관람가능한 토이스토리4를 시작으로 라라랜드, 보헤미안 랩소디, 비긴 어게인, 어벤져스:엔드게임 까지 모두가 사랑하는 명작들로 구성되어 있다.

접수는 하남문화재단 홈페이지 www.hnart.or.kr를 통해 사전 접수를 진행하며, 하남시민 우선으로 매 영화당 100대를 선착순 접수한다. 보다 많은 시민들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접수 우선순위를 부여할 예정이다.

하남문화재단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답답한 일상이지만, 온가족이 차안에서 영화를 즐기고 가족 간의 거리는 더욱 가깝고 두터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하남/이광희 기자

화물자동차 205대 주차하는 주차장 문 연다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장 6월 1일부터 공식 주차장 운영



화물자동차 2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문을 연다. 수원시는 8일 권선구 고색동 551번지 일원에서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개장식을 열었다. 6월 1일부터 공식 운영하고, 수원도 시공사가 운영을 담당한다.

수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총면적 2만 647㎡ 규모로 화물차 205대를 주차할 수 있는 야외 주차면과 승용차 95대를 주차할 수 있는 건물식 주차장이 있다. 건물식 주차장은 연면적 3433.83㎡, 지상 3층 규모다. 1층에 관리사무실, 휴게실, 화장실 등이 있다.

2019년 6월 건립을 시작해 올해 4월 준공했다. 총사업비 200억 400만원(국비 51억 7300만원, 시비 148억 3100만원)이 투입됐다. 시공은 엠투건설(건축·토목·기계)·동원이앤씨(전기)·진흥전기통신(통신)·디에이치아이(소방)가 담당했다.

수원시에 등록된 화물차는 8700여대에 이르지만, 그동안 화물자동차 주차장은 한 곳뿐(대왕교동화물주차장, 240면)이어서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어쩔 수 없이 벌금을 내가며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 밤샘 불법주차를 했고, 삐걱하게 주차된 화물차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고,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컸다. 수원시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단속을 하기도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개장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이부영 수원도시공사 사장, 염상빈 경기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밤이면 불법 주차된 화물차로 가득 찼던 주택가 뒷골목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 줄 것"이라며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효율적인 물류 구조를 만들고, 운수종사자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는 필수 기간시설"이라고 말했다.

수원/유기서 기자

'코로나19 차단 총력' 195개 유흥시설 긴급 점검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 집합금지 명령 지역사회 확산 방지 위해 방문자 검사



용인시는 10일까지 31개반 62명의 점검반을 투입해 관내 195개 유흥시설 전체를 긴급점검해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에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키로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서울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한 시민이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된 데 이어 8일 2명의 시민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시는 9일 처인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하는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관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 대응키로 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방역수칙 미이행 업소가 적발될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사실상 영업정지에 준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법은 도지사는 물론이고 시장·군수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자진해서 검체 채취를 하는 클럽 이용자 등에 대해선 역학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방심하다 방역에 실패한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경우 인명뿐 아니라 경제나 재정에도 엄청난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어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거리두기와 예방수칙을 지켜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이태원 클럽 방문 확진환자와 관련해 9일 오후 5시 기준 직장 및 접촉자, 군 관계자 등 114명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이 가운데 2명이 양성판정을 받았고 101명은 음성으로 확인됐으며, 11명에 대해선 검사가 진행 중이다.

시는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 정보를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용인/유기영 기자

**습관적인 당신의 불법소각
소중한 산림을
불태울 수 있습니다!**

소각할때 생기는 크고 작은 불씨들
특히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먼곳까지 날아가 큰 산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멈추세요!

산림청

허가없이 산림과 가까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폐비닐 등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불법이며 큰 산불로 번져 끔찍한 재앙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고양시, '경기도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성공적 실시

고양시캣맘·캣대디 봉사단과 고양시수의사회 협력

길고양이 집중 중성화 통해 개체 수 조절 효과 기대

경기 고양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양시 캣맘·캣대디 봉사자들과 고양시 수의사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기도 길고양이 중성화의 날' 사업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경기도의회 소영환 의원이 격려 차 참석했고, 지역단체 활동가를 비롯한 수의사, 대학생 등 5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지역단위 집중중성화(불임수술)를 통해 개체 수 조절 성과를 검증하고자 도내 최초로 고양시에서 시범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에서는 사업 대상 구역을 성사동 재개발지구로 한정, 개발 지구에서 방치될 수 있는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을 차단함과 동시에 매몰과 굶주림으로 불행한 환경에 노출 될 수 있는 어린 길고양이들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2차 목적을 두고 고양시 캣맘 활동가들과 고양시 수의사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캣맘 활동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활동가들은 자발적으로 봉사단의 대표를 뽑아 TNR('포획-수술-회복-방사') 역할을 분담하고 전담조를 편성하는 등 매우 조직적이고 전문적인 활동 역량을 보여주었다.

또한 경기도수의사회(회장 이성식)에서는 고양시수의사회(회장 양승화)와 함께 지역 단체에 고양이 간식을 후원하고 고양시수의사회 부회장(이연구 원장)을 비롯한 6명의 병원장이 직접 수술 봉사에 참여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극 협력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300~400마리의 개체 수 조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제안하고 주도한 서정대 조윤주 교수는 "기존의 유사 사업과 비교했을 때, 매우 훌륭한 수술 환경과 조직적인 자원봉사로 좋은 성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캣맘 자원봉사를 총괄한 봉사단 대표 안지혜 씨는 "활동가들이 하



나의 목표를 두고 함께 봉사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면서 "이후 개최될 2차, 3차 사업에도 많은 활동가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주관한 경기도 축산산림국 김성식 국장과 동물보호과 이은경과장은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고양시농업기술센터와 고양시 캣맘·캣대디 봉사자들, 고양시 수의사 및 경기도 수의사회, 서울대·건국대·서경대 등 자원봉사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

혔다.

고양시농업기술센터 송세영 소장은 "고양시 동물보호팀에서는 상시적으로 연 2천여 마리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도 지역동물보호센터 운영을 통해 연 1,600마리의 동물을 직접 구조·보호하고 있다"며 "동물과의 행복한 공존문화 확대를 위해 △가정 내 임시보호, △찾아가는 동물학교, △반려동물공원 조성 등 동물 구조 활동과 동물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고양/김성태 기자

안산시 공직자들 지역상권 살리기 '효과 있었다'



청사 주변 10개소 중 개소 도움됐다 코로나19 사태 종료까지 고통 분담할 것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두 달 이상 구내식당 문을 닫고 '착한소비운동'을 벌인 결과 시청사 인근 음식점 10개소 중 7개소가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시청 및 상록구청 주변 음식점의 74%(23개소)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또 절반에 가까운 음식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행되면 3~4월 방문한 이용객이 지난 2월보다 늘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하루 평균 1천500여명이 이용하는 시청 본청과 상록구청·시청 제3별관(환경교통국)·상하수도사업소 등 4개 구내식당은 지난 3월2일부터 지난 8일까지 두 달 이상 운영을 중단했다.

인근에 식당가가 없는 단원구청도 지난달 6일까지 착한소비운동에 동참하는 등 안산시 모든 직원들이 지역식당가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이 제한되자 식당가의 매출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된 특단의 조치였다.

시청 및 상록구청 주변 음식점의 경우 '구내식당 휴무가 실제 매출에 도움이 됐는가?'는 물음에 23개소인 74%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주요상권 음식점은 16%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화됐던 3~4월의 식당 방문자 수가 2월보다 증가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시청 및 상록구청 주변 음식점의 51%(크게 증가 3%·약간 증가 48%)가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주요 상점가의 10%가 '약간 증가'했고, 25%는 '비슷한 수준', 34%는 '약간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청사 주변 음식점 가운데 '10% 미만 매출이 감소한 식당'이 45%(9개소)로 조사되는 등 공직자들의 착한소비운동으로 큰 어려움은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직자들이 실천수범해 착한소비운동에 나서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나 다행"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고통을 분담하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김대성 기자

광명시, 자동차 운행거리 줄이면 인센티브 지급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첫 시행 참여 시 최대 10만원 지원

광명시는 관내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본격 시행하고 참여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를 위해 가정과 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하던 탄소포인트제를 자동차 분야로 확대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지급기준은 주행거리이며, 감축률과 감축량으로 실적을 평가한다.

실적은 최대 10만포인트까지 인정하며 10만포인트는 10만원으로 환산해 연 1회 모바일상품권을 지급한다.

광명시는 올해 23대를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할 예정이며, 가입대

상은 광명시내 등록 차량 중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차량이다. 친환경 차량(전기, 하이브리드 등)은 제외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누리집(http://car.cpoint.or.kr)에서 회원가입 후 자동차 번호판 사진, 누적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 자동차 등록증 사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기존 가정·상가 등 건물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탄소포인트제로 약 6,100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한데 이어 자동차 분야까지 확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광명/정채두 기자

파주시, '임진강 거북선 복원' 착수

파주시는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학술연구 및 기초설계 용역'을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 복원 추진위원회' 활동 등을 토대로 임진강 거북선에 관한 기록을 지역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한 바 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임진강 거북선의 구조 분석에 적용할 조선 초기 군선을 특징하고 그 형태와 구조에 근거한 '조선 최초 임진강 거북선'의 기초설계와 그동안 연구에서 간과했던 전통 한선(韓船)의 노(櫓) 연구, 고선박 및 군선(軍船) 복원사례 조사, 향후 활용방안 등의 과업도 함께 추진한다.

최종한 파주시장은 "연구결과에 대한 설계와 문화관광자원화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추진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합동 소방훈련 실시

화재사고 최고 처방은 예방 위기대처 능력 합동훈련 실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손혁재)은 지난 7일, 운영행정복지센터에서 상반기 합동 소방훈련으로 파주소방서 운영119안전센터, 운영1,2,3동사무소 및 상주기관의 자위 소방대원과 함께 위기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이 날 훈련은 4층 노인복지회관에서 원인 모를 화재 발생을 가정해 실시했으며, 각 대원들은 실제 상황에 대비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며 일상불란하게 움직여 청사 내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청사 이용 주민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켰다.

대피 후 소화전 이용법을 잘 모르는 직원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소화전 사용과 5층에서 구



파주/김성태 기자

조대를 통해 대피하는 요령에 대한 교육도 119소방대원의 강습과 실습이 이어졌다.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오늘 실시된 합동훈련으로 직원들의 대처능력을 향상 시키고, '화재 사고의 최고 처방은 예방'이라는 인식과 함께 청사 화재 예방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 공익직불금 6월 19일까지 접수

광명시는 6월 19일까지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소득을 일정 금액 보전해주는 제도로 기존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통합했다.

공익직불제는 0.5ha 이하를 경작하는 농가에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ha당 최대 205만원을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가구성원 소유면적 1.55ha 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 개인 2천만 원 미만 및 가구 4천5백만 원 미만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 ▲후계농업인·전업 농업인·전업농 육

광명/정채두 기자

평택시, 쾌적한 환경 위해 악취실태조사 실시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쾌적한 환경을 위해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평택시는 지난 8일 이종호 부시장, 김재균 도의원, 이병배·유승영·권현미 시의원, 실국소장, 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시 악취관리지역'에 대한 악취실태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택시 악취실태조사'는 평택시의 악취관리지역인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와 평택 세교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이다.

주요 내용은 ▲연2회(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20지점(악취관리지역내 6지점, 경계구역 8지점, 영향지역 6지점)에서 악취 측정 ▲복합악취 및 지정악취물질 22종, 대기유해물질 8종 분석 ▲악취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시료채취 및 분석 등이다.

대고회에서 연구 용역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조영덕 팀장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평택시 악취실태조사를 통해 악취발생량의 특성을 파악,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조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유기영 기자

하남시, 폐 보도블럭 재활용 시범 운영 실시

재활용으로 환경보호 예산절감 효과 기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하남시는 공공 도로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 보도블럭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 보도블럭 재활용 시범 운영을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폐 보도블럭'이 건설폐기물로 취급되어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 매립 등의 처분 보다는 재활용을 통한 자원생산성의 향상 도모를 우선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 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시는 이달 말부터 공공 도로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폐 보도블럭 중 상태가 양호한 폐 보도블럭을 선별하고, 사전 심사를 거친 신청자에게



하남/이경희 기자

무상으로 배부할 방침이며 수령과 운반은 신청자 부담이다.

폐 보도블럭 재활용 사용 신청은 이달 11일 이후 시 건설과 담당직원에게 우선순위로 기간 내 접수하고 신청서 작성·심사를 통해 배부 받을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폐 보도블럭을 재활용하여 환경보호와 예산절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용인시, "집합금지 명령 불응 유흥시설 강력 제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따른 조치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백군기 용인시장은 10일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응하는 유흥시설을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5월10일 18시부터 5월24일까지 도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6일부터 10일 12시까지 전국적으로 이태원 클럽과 관련 54명의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시는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8일 치안구보건소장을 팀장으로 '감염확산 대응 긴급대책 TF팀'을 편성해 전 유흥시설을 긴급 점검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이태원 일대



용인/유기영 기자

중장년기술창업센터 창업기업 사업화지원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 중장년기술창업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는 상황에서 위축된 창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디자인, 판로개척, 지식재산권 출원 등 사업화 지원을 실시한다.

의정부시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창업 공간 제공, 창업상담, 창업교육,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풍부한 사회 경험을 가진 중장년층의 창업은 물론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또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는 작년 창업 21건, 신규 일자리 창출 21건, 입주기업 매출액 46억 원 등의 실적과 함께 전국 27개 센터 중 'S'등급으로 선정되어 국비 1억 8천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경기도, 올해 내수면 어업생산량 4천톤 목표 86억 투입

수산자원 회복과 양식사업 활성화 등 중점 분야 총 86억 투입 어업생산량 2017년 2,593톤, 2019년 3,686톤으로 계속 증가

경기도가 도내 내수면 어업생산량 4천 톤을 목표로 어민물고기 방류, 인공산란장 조성, 어도(물고기 이동통로) 보수 등 강과 하천에 사는 수산자원 증식과 보호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경기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 올해 86억 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경기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은 해양수산부의 5개년(2017~2021) 제4차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내수면 어업생산량은 수자원 방류와 보호 등 지속적인 자원관리를 2017년 2,593톤, 2018년 3,241톤, 2019년 3,686톤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는 수산자원을 계속 늘려 안정적인 어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내수면어업의 기본 목표를 '내수면 자원관리 체계구축을 통한

어업생산량 4천 톤' 회복으로 정하고 4개 중점 분야와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4개 중점 분야는 △지속가능한 어로어업 기반 조성 △내수면 양식사업 활성화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도·관리 △내수면 생태계 복원 및 어업질서 확립이다.

세부 추진 내용을 보면 먼저 도는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23억을 투입해 뱀장어, 쏘가리 등 수역성이 높은 어민물고기 1,857만 마리를 방류한다. 또한 물고기들의 번식 장소를 확대하기 위한 인공산란장 조성사업도 확충 등 방류 후 사후관리에 1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두 번째로 내수면 양식사업 활성화에 47억을 투입한다. 비상발전기, 지하관정 등 양식시설 설치 비용 지원과 관상어 생산·연구·유통·수출입을 한 곳에서 진행할 수 있는 관상



어 단지조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세 번째로 내수면 양식장 질병검사와 유해물질 잔류량 검사를 통한 안전한 수산물 생산 지도·관리에 5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 밖에 강·하천 내 쓰레기 수거와 산란·성육기인 5~9월 중 불법 어업 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 등에 10억8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상우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다년간에 걸친 노력으로 도내 내수면 수산자원이 많이 회복된 만큼 이번 계획은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증가와 지속가능한 자원 관리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계획으로 도내 내수면 어업 경쟁력을 더욱 높이고 어민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게끔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유기서 기자

“수원시 전통시장 ‘지역화폐 바가지’ 없습니다”

수원시 상인연합회, 결의대회 바가지 행위 방지 대책 논의



원시 22개 전통시장 상인회가 지역화폐로 물건을 구매할 때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의 '지역화폐 바가지' 행태를 근절하기로 결의했다.

수원시상인연합회는 8일 지동시장 상인교육장에서 '지역화폐 바가지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상인연합회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추가결제를 유도하지 않고 ▲손님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도하지 않고 ▲지역화폐·신용카드 사용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사용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화폐 사용 거부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모든 법적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수원시상인연합회 소속 상인회 22명은 결의문 발표에 앞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지역화폐 바가지 행위'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수원시상인연합회는 상인들에게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모든 전통 시장에 지역화폐 사용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고, 22개 시장 모든 점포(3200여 개) 지역화폐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최극렬 수원시 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에서 바가지를 근절해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즐겁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월 31일까지 수원페이(지역화폐) 인센티브를 10% 지급한다. 예를 들어 수원페이에 50만 원을 충전하면 5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해 5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수원/유기서 기자

도, 기획부동산 투기 의심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획부동산 주의보'도 전국 최초로 운영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대책' 추진 발표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

또 토지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한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기획부동산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 업무 강화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도는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 근절 방안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확대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지난 3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지역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동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으로 도는 당시 이 지역을 대상으로 기획부동산이 지속적으로 투기적 지분거

래를 노리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도는 시·군 협의와 검증을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선제적으로 선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두 번째,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값 담합 단속 강화를 위해 경기도 토지정보과와 지난 2월 한국감정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도 특사경이 협업해 연중 수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업

무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됐으며 계약 해제나 취소된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거래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에서 조정 대상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 주택으로 확대됐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민선7기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대표적인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도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유기서 기자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계획수립'



연천군(군수 김광철)은 유네스코가 지향하고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향후 5년간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천임진강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의 착수보고회를 지난 7일 연천군청에서 개최했다.

본 용역은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김재현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 내년 초까지 진행되며 착수 보고회는 김광철 연천군수, 임재석 연천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부의장 및 의원, 조도순 한국유네스코 MAB 위원장, 연천군 부군수와 관련 국과장, 읍면장 등 관련자 27명이 참석했다.

조도순 유네스코 한국MAB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유네스코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아왔으나, 이제는 원조를 해주는 입장이 되었으며, 국제기구 원조의 대표적인 성공케이스로 손꼽히고 있고, 연천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이 앞으로 전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김성근 기자

“기름에 단비”김포소상공인 지원금 지급률 63% 넘어

"지원감면 효과, 매출회복으로 이어져" 소비생산, 생활방역지침 준수 안전보장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임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률이 63%를 넘으면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고 있다.

앞서 김포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2만 명의 임차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4월 29일 신청 종료일까지 1만 5,557명의 신청을 마쳤다.

8일 현재 서류 심사를 거쳐 9,810명에게 모두 98억 1천만 원의 경영안정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되면서 "기름 속에 단비"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신청 폭주로 인해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14일 신청 건에 대해 지급되고 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의 지급률도 7일 현재 48%가 넘었다.

특수고용근로자 및 프리랜서, 소상공인 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각각 693명, 38명이 1차 신청을 마쳤으며

458명, 18명에게 총 2억 6732만 5천 원이 지급됐다.

김포시와 경기도가 1인당 총 15만 원씩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도 소비 진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이 도내 자영업자 4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1%가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하는 등 소비 활성화 효과가 입증되고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과 전체 시민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상하수도요금 전액 감면 등의 효과가 소비 진작과 매출 회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건전한 소비와 생산활동, 생활방역 지침 준수가 궁극적으로 나와 가족, 이웃과 공동체의 일자리와 안전을 보장한다"고 강조했다.

김포/차명운 기자

“만덕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제주돼지는 맛있다”

돼지 앞의 제주라는 단어만으로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돼지가 다 같은 제주돼지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제주만으로는 부족한 무언가를 (주)만덕축산유통이 채웠습니다.

제주의 지연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마법을 품은 돼지고기가 이제 우리를 새로운 맛의 세계로 데려다줄 것입니다.

(주)만덕유통

064-792-2800

만덕포크

만덕고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남 4길 26

서대구산업단지 서편도로 개통·재생사업 첫 성과

코로나 19로 어려운 산단 내 공장,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 도시고속도로 직결 연결로 개설로 성서IC, 서대구IC 교통체증 완화

대구시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 첫 성과로 서대구산업단지 서편도로 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11일 오후 6시 도로를 개통했다.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개통식 행사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시민들의 참석은 자제하고, 주요 내빈과 공사관계자만 참석한 가운데 행사를 진행했다.

대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장, 기업체의 물류비용 절감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서대구산업단지 재생사업 1단계 전체공사 완료 이전에 서편도로(와룡변전소~이현삼거리) 2.1km와 신천대로 연결도로를 우선적으로 개통했다.

지난 2016년 9월 공사 착공 이래 3년 8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개통하는 이 도로는 달서구 용산동와

룡변전소에서 서구 이현동이현삼거리를 연결하는 왕복 4~6차로, 연장 2.1km로서 총사업비는 528억원이 투입됐다.

서대구산업단지는 1975년 조성된 후 일대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그동안 사업주들이 물류 수송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신천대로와 산업단지를 바로 연결하는 진출입로가 없어 산업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신천대로를 거쳐 국채보상로나 북비산로를 이용하는 등 도로 선형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대구시는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2013년 12월 서대구산단을 '노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 총사업비 1158억원(국비 579억, 시비 579억)을 투입해 2024

년까지 서대구산업단지 서편도로 신설과 내부도로 확장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고속도로에서 서대구산업단지로 이동하는 교통량 중 일부가 서편도로로 분산됨에 따라 신천대로 일일 교통량이 2만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대구IC 삼거리 교차로 교통량도 5천대 정도 감소하는 등 서대구산업단지 일대의 상습정체로 인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호 대구시 건설본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기업의 물류비용절감에 다소나마 힘을 보태기 위해 전체공사 이전 서편도로를 우선 개통한다"며 "현재 건설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3산업단지, 성서산업단지



등 나머지 산업단지 재생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대구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권대순 기자

경주시, 오늘부터 공공체육시설 전면개방한다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해 국민체육센터, 체육행사 순차적 운영

경주시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이에 앞서 실외체육시설 시민운동장, 축구공원, 베이스볼파크구장 등 40개소는 지난달 27일부터 재개관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실내체육관, 장애인체육관, 양남주민힐센터, 외동읍민체육관, 안강탁구장 실내체육시설 등 5개소는 오는 13일부터 개방할 예정이다.

다만, 국민체육센터는 시설별 상황에 따라 26일 개방하고 정원 관리를 위해 우선 자유 이용만 허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함께 이용객들이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각 시설을 개방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소독작업을 완료했으며, 시설별 방역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빈틈없는 방역으로 추가 감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공체육시설이 모두 개방은 되지만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강습프로그램과 체육행사는 모집계획과 행사별 일정 조율 등 사전절차 준비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시는 그동안 코로나 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공공체육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체육시설 320개소에 대

해서도 방역지침 준수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추진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수칙과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고 체육시설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시에서도 각 시설의 예방소독과 손소독제 비치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천해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경주, 6급이상공무원청렴도평가

경주시는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6급 이상 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경주시 6급 이상 공무원의 개인별 청렴도를 진단해 청렴도 취약항목에 대한 자기관리를 유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2019년에 처음 실시했으며, 이후 주남영 경주시장의 청렴도 평가를 매년 실시해 지속적인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꾀해왔다.

청렴도 평가 전문조사기관에 위탁해 실시되는 이번 평가는 상위·동료·하위그룹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6급 이상 공무원 440명의 개인청렴도를 △공정한 업무수행 △부당이익수급 금지 △근면한 공직태도 △조성 △정렬 실천 노력 및 솔선수범 △직무수행능력 및 민중적 리더십 등 20문항의 온라인(이메일) 설문을 통해 2주간 평가하며, 6월 중순 전체결과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주남영 경주시장은 "이번 청렴도 평가를 통해 '신뢰받는 경주시, 열린 경주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경주시, 농어촌 하수처리장 신·증설 추진



양남·산내 대현 처리장 공사 착공 양남신내 신설... 수질개선 도모

경주시는 농어촌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과 시설 용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3개소를 신·증설한다.

시는 우선 5월초 양남 하수처리장 및 산내 대현2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착공해 2022년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양남 공공하수처리장은 국비 51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6억 원으로 시설용량 600m³/일을 증설(기존 1,800m³/일)하는 사업으로, 나아·관성 해수욕장, 주상절리 전망대 등 해양관광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동해안의 수질개선을 도모한다.

산내 대현2 소규모 하수처리장은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6

억 원으로 시설용량 150m³/일(기존 300m³/일)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산내면 대현리 일원 전원주택 및 캠핑장 이용자의 증가로 발생하는 오수 처리를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동창천 수질개선과 청도 운문댐 상수원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읍산과 인접해 펜션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기존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 못하고 있는 양남면 신서리, 서동리 일원에 국비 11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54억 원으로 시설용량 200m³/일의 하수처리장을 신설해 동해안 지역의 하수 처리 문제도 모두 해결할 계획이다.

주남영 경주시장은 "농어촌지역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을 통해 쾌적한 정주권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며, "주민 친화형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예천군, 우리 동네는 우리가 스스로 지킨다



12개 읍면 일제 방역소독의 날 운영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방역수칙 준수

예천군이 지난 4월 9일 이후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의 마지막 접촉자 자가격리 해제일이 8일에 맞춰 읍·면 일제 방역소독의 날을 가졌다.

앞서 관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월 21일 처음 발생한 이후 3월 7일까지 6명으로 늘어났으며, 이후 한 달 넘게 공백기를 가졌다.

그러나 4월 9일 40대 여성이 양성 판정을 받으며, 점진적으로 이어져 현재까지 37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으로 번지면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군은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라는 슬로건 아래 방역 취약지 등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을 실시해 코로나19 전파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며,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

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중점방역대상으로 공공시설을 비롯한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터미널, 공원, 편의점, PC방, 노래방, 학원, 교습소, 종교시설, 엘리베이터 등 집단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로 정하고 집중소독에 들어갔다.

김학동 군수는 "방역소독의 날에는 읍·면 읍·면사무소 및 관공서, 민간업체 등 전 군민이 동참해 불안과 공포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예천 만들기에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5월 6일부터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마스크 착용하기, 30초 이상 손 씻기, 기침예절 준수, 건강거리 2m 유지하기, 아픈면 3~4일간 집에 머물기, 수시로 환기 및 소독하기 등 개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예천/장성우 기자

경북 청년,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추진

도내 거주 5인이상 청년대상 지원 청년문화 조성·소통 활성화 기대

경북도는 오는 6월 1일까지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소통 강화 및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을 위해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경북도내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경북 거주 청년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모임·단체이며, 팀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관광, 문화, 예술, 교육, 복지, 창업 등의 분야와 관련된 프로젝트 활동비용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유사사업이나 활동,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학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업, 단순 과제활동, 영리목적 또는 정치·종교 관련 활동은 신청이 제한되며 활동지역은 경북도 내로 한정되므로 신청 시 주의를 요한다.

신청은 경북도 홈페이지(www.gb.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대구경북연구원 도청센터(070-4227-9896, kjh1008@dgi.re.kr)로 이메일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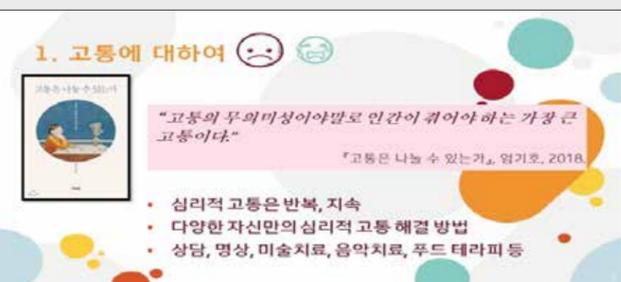
경북도/정승초 기자



응모된 사업은 서류심사를 거쳐 활동계획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고려한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될 예정이며, 선정결과는 5월 25일 대구경북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전우현 경제부지사는 "이번 사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북청년들의 모임을 지원하여 건강한 청년문화 조성 및 소통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사업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한 청년문화가 정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교육청, 5월 가정의 달 맞아 이색 이벤트



Wee센터 '들리는 학부모연수' 운영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나서

예천교육지원청 Wee센터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가정의 긍정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들리는 연수'를 운영한다.

예천Wee센터 상담전문가들이 우리지역 특성을 고려해 직접 제작한 이번 '들리는 학부모 연수'는 치유적 글쓰기, 청소년을 위한 미술치료, 건강한 생각의 힘 기르기,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라는 총 4가지 주제로 구성되었으며, 코로나19

로 인해 어느 때보다 자녀 교육에 대한 걱정이 학부모들의 상당공백 최소화화 비대면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온라인강의 및 SNS 배포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경북도예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ygc/) 접속 후 Wee센터의 알림마당 자료실로 들어가면 누구나 연수를 들을 수 있다.

김현국 Wee센터장은 "이번 들리는 학부모교육 연수 자료는 외부 공개에 대한 부담이 있었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제작되었기에 학교에서 적극 활용해 우리지역 모든 가정의 행복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예천/장성우 기자

경북청년무역전문인 꿈을 향한 도약이 시작되다

21일까지 청년 무역전문인재 50명 모집 도내 거주·지원동기·인성 소양 등 평가

경북도는 복잡한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수출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실무형 청년무역인재 양성을 위해 제8기 청년무역사관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도내 주소지를 둔 만 39세 이하 청년, 경북 소재 대학교 재학(졸업)생, 타 지역 대학교 재학(졸업)생 중 부모 주소지가 도내인 청년 등이며, 지원동기 및 인성·소양 등을 평가하여 50명을 선발하게 된다.

선발된 교육생은 6월부터 온라인 사전학습을 통해 수출입기본 과정을 이수하고, 7월 13일부터 7월 30일까지 14일간 본과정으로 무역이론교육, 비즈니스 영어, 수출 시뮬레이션 등 총 145시간의 강도 높은 교육을 받게 된다.

그밖에 수료생 중 성적 우수자에게는 해외교역전에 파견되어 바이어

마케팅, 해외시장조사 등의 임무를 경험할 수 있는 해외무역현장탐방의 기회가 제공된다. 또한 무역영어 자격증 취득반 운영, 무역아카데미 온라인 강좌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무역사관학교는 2013년부터 경북도와 한국무역협회가 협력해 청년무역인력을 양성하고 있는 경북의 대표적인 무역 실무교육 과정이다. 지난 7년 동안 총 502명의 수료생을 배출했고 취업대상자 344명 중 282명이 취업하여 82%의 취업률을 보이며, 청년실업난 해소와 지역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경북도 박시균 청년정책관은 "보호무역주의에 이어 코로나19로 세계무역의 형태가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무역환경변화의 빠른 이해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청년무역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청년취업난과 수출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전문무역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남수산자원연구소, 어업인에 자주복 수정란 공급

수정란 400만 개 공급과 일본 수출상담 상담 마쳐 양식 저변확대 필요한 어종, 어업인 소득증대 전망

거제시 저제면 법동어구로에 위치한 백 모씨(54)가 운영하고 있는 어류종자생산업체인 "A 수산"의 수조 바닥에서는 지금 어린 자주복이 알에서 갓 부화하여 헤엄쳐 나오는 장면이 연출된다.

수조의 여러 곳에 웅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아니어서 절로 탄성이 나온다.

이 어린 자주복은 앞으로 2개월 후 남해안 가두리와 어류양식업체에 종자로 공급되어 양식된다. 지난해부터 자주복 종자를 생산하여 거제와 제주도에 종자를 판매한 경험이 있는 백 모씨의 눈도 희망에 차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해역을 회유하는 회유성이 강한 자주복은 우리나라보다 일본에서 소비가 많은 품종으로 수출 전략품종으로 유망하지만 양식 시 관리기술의 난이도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2012년부터 자주복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종자생산을 하고 있는 김 모씨(53)는 "현재는 자주복 양식이 소

규모로 국내 활어 판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산업으로 성장 시 수출 등 대단위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양식 저변확대가 필요한 어종으로 최근 거제시를 중심으로 양식하려는 어업인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주복은 머리와 몸통의 앞쪽은 황단면이 원형에 가깝지만 꼬리 쪽으로 갈수록 옆으로 납작하고 몸길이 최대 75cm까지 성장한다.

먼 바다의 낮은 곳에서 생활하며 새우·게·물고기 등을 잡아먹고 사는데, 수온 15℃ 이하에서는 먹이를 먹지 않고 10℃ 이하이면 모래 속에 몸을 묻는다.

산란기는 3~6월로 수심 20m 부근의 모래나 자갈 바닥에 알을 낳는다. 살·껍질·정소에는 독이 없으나 간과 난소에 맹독이 있다.

한국 전 연해와 일본·타이완·중국·동중국해에 분포하며 복어류 중에 가장 맛이 좋으며 고급요리 재료로서 값이 비싸다.

현재 국내에서 자주복 수정란을 생산하여 어업인에게 공급하고 있



는 곳은 경남도수산자원연구소(소장 이인석)가 유일하다. 지금 부화하고 있는 자주복 수정란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관리중인 어미에서 채란하여 4월 29일에서 5월 1일 사이에 인공수정을 실시한 400만 개의 수정란을 5월 8일에 자주복 종자생산을 희망하는 5명의 어업인에게 분양한 것이다.

자주복 수정란은 바닥에 가라앉는 침성란으로 부화까지 10일~15일 정도 장시간이 소요되며, 어업인들이 직접 수정란을 수조에서 관리할 경우 부화되기 전 수정란이 오염되어 폐사하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도수산자원연구소는 자체 제작한 수정란 부화기를 사용하여 수정란을 9일 정도 연구소에서 관리하여 부화하기 직전 분양함으로써 부화율이 높아 어업인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이인석 도수산자원연구소장은 "수산자원연구소는 양식품종의 고부가가치화와 전략품종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어업인의 수요가 있는 품종 지원 등 변화하는 양식 환경에 맞게 미래를 대비하는 연구 과제를 꾸준히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김영규 대기자

거제시 장애인체육회-상공회의소 업무협약

장애인 고용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장애인스포츠타임스 발굴 등 행정적 지원



제시장애인체육회와 거제상공회의소는 최근 거제시청 시장실에서 장애인스포츠타임스 고용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상공회의소는 관내 기업체에 장애인 고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거제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스포츠타임스의 저변 확대와 장애인의 고용증진에 기여할 것"이라며 "관내 기업체에도 장애인 의무 고용률 달성에 협조해 장애인스포츠타임스와 관내 기업체 모두 상생

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1월말 기준 경남도 장애인선수 채용현황은 거제시 1개업체 1명, 양산시 1개 업체 2명, 창원시 3개 업체 10명으로 총 5개 업체 13명이다.

거제시에는 거봉백병원 소속으로 박수한 핸드사이클 선수가 채용되어 훈련하고 있으며 11,052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다.

체육활동을 하는 장애인에 11개 단체 총 340명이다.

거제/김영찬 기자

부산시, 환경교육 교재·교구 무료 배부된다



'우리집은 환경놀이터' 가정에서 활용
관내 현직교사와 공동개발, 무료 배부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관내 초·중학생 및 시민에게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배부를 시작했다"면서 "교과연계도 가능하니 부모님과 함께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개학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관내 초·중학생 및 시민에게 환경교육 교재·교구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12일 밝혔다.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와 관내 현직교사들이 공동 개발한 미세먼지 경보 SOS, 우리가 몰랐던 부산의 자연환경 이야기 팝업북, 을숙도 생태 탐험 총 3종 교재를 무료로 배송해 준다.(배송비도 무료)

신청 수량은 한 가정당 교재·교구별 1세트씩이며, 부산광역시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오후 3시까지 신청분은 당일 택배를 통해 배송된다.

부산/김영찬 기자

유지황 대표, 영남권 최초 아쇼카 펠로우 선정

청년들에게 농촌생활 경험 체계적 제공
국내 15명 펠로우와 사회혁신 네트워크

경남 남해군 두모마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지황 팜프라 대표가 '2019-2020년 아쇼카 한국 펠로우'로 선정됐다. 지금까지 배출된 15명의 '아쇼카 한국 펠로우' 중 영남지역에서의 선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쇼카'는 세계적으로 급급한 사회문제를 시스템 차원에서 해결하는 사회혁신기업가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비영리 글로벌 조직으로, 1980년 미국에서 설립됐다.

'아쇼카 펠로우'는 1982년에 처음 선정된 이후 전 세계 4천여 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며, 대표적으로 아동노동 근절운동으로 2014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아동인권운동가가 1995년 아쇼카 펠로우 출신이다.

2013년 창립된 '아쇼카 한국'은 국내 아쇼카 펠로우 1호 서명숙 제주올레 이사장을 비롯해 15명의 국내 펠로우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아쇼카는 아쇼카 펠로우가 사회혁신활동에 집중해 더 큰 사회적 임팩트를 낼 수 있도록 3년간 생활비를 지원한다.

경남 남해군 상주면 두모마을에 위치한 팜프라촌은 과열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가 기존의 획일화 된 삶의 방식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담은 삶의 방식'을 고민하고 이를 도시가 아닌 농어촌에서 개척할 수 있도록 체계적 '촌 라이프' 경험을 제안한다.

유지황 팜프라 대표는 "미래세대가 평등한 기회 속에서 다양한 삶을 만들어가는 일은 지금 사회를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진행해 갈 프로젝트들도 잘 기록하고 공유해서 모두가 가져야 할 권리와 미래를 지켜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경남도 사회혁신추진단은 지난해 초부터 남해군과 협업해 유지황 대표가 남해에 정착해 새로운 시도를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유 대표의 혁신적인 시도와 남해군



경남도/김영규 대기자

부산아이디카치키움시민사업공모

부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참여하는 '따뜻한 가족 이야기' 스토리 공모 이벤트를 5월 29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가족 스토리 공모전은 부산시 출산보육정책 브랜드인 '부산 아이(多)가치키움'의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무엇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세상 되새겨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프로젝트다.

지역작가들이 문장을 다듬고, 글에 어울리는 그림을 덧붙여 정겹고 아름다운 부산만의 정서를 듬뿍 담은 소장육구를 자극하는 멋진 그림책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이라는 곳에서 운명처럼 만나 사랑을 꽃피우며 가족들과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우리 사회엔 낯설기만 한 다문화가정이나 반려동물 등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들도 두루 담아낼 것"이라며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들이 우리 부산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오장을 편안하게,
피부를 매끈하게!'

'따뜻 해풍은 밥맛을 결정해요!'

'섬유질과 당도가 뛰어나요!'

'저염도에 유산균이 많아요!'



강화도농특산물

해풍의 파스함과 자연의 신선함, 청정바다의 기운까지 담아

오염되지 않은 강화 그대로의 맛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식탁에서 건강하고 신선한 맛을 즐기세요.

꼭 만나보고 싶은 강화의 맛

최고의 셰프는 강화입니다



강화도농특산물은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여수 경제 살리자”... 권오봉 시장·소상공인 한자리

침체된 지역 상권 살리기 위해 사랑방 좌담회 개최 독과점 배달앱 횡포 막기 위해 업계 의견 수렴해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을 지키기 위해 여수시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방역입니다.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활력을 되찾는 것도 중요 과제입니다”

코로나19 방역체계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 지 이틀만인 지난 7일, 권오봉 여수시장이 사랑방 좌담회에서 방역과 경제 활성화를 강조했다.

8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수산시장 2층 교육장에서 권오봉 여수시장과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 회원 15명이 사랑방 좌담회를 가졌다.

이번 사랑방 좌담회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을 챙기고 침체된 지역 상권을 살리겠다는 권 시장의 의지가 담겼다.

이 자리에서 권 시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 방역 수칙을 강조하며,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시간 확대’와 ‘소상공인대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확대’ 등 지역 상권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군산시를 예로 들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막고자 지역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공앱 개발을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방00(남 37)씨는 권 시장에게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권 시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노의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겠다”면서 “추후 관광객 증가로 주차장 이용률 증가와 회전을 감소 등 민원이 발생하면 다시 이전으로 되돌리겠다”고 답변했다.

최00(남 53)씨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며 ‘소상공인대출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을 요청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경우 보증수수료(0.8%)를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고 응답했다.

박00(남 54)씨는 “소상공인이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홍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지난 2월부터 지역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집중 안내·모집한 결과 1,200여 업체가 신규로 가입했다”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참



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권 시장은 “음식문화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개인 찬기, 집게 사용을 의식업계에 제안한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여수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도시라는 인식을 심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민간 배달 앱 문제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자 공공 배달 앱 검토를 담당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며 “지역 외식업계에서 현 상황과 앱 개발의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살펴 보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권 시장은 “지난 2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시행해 현재 40억 원 이상이 팔려

나갔는데, 상품권이 현금화 수단(일명 상품권깡)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신고 접수 등을 생각해 보겠다”면서 “지역 상품권과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8월 이전까지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생활 속 개인 방역에 더욱 신경 써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수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권의 대변과 지원 향상을 위해 발족을 위해 지난 2014년 출범했다. 외식업, 미용업, 광고업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으며, 회원은 5,500여 명이다.

여수/김상면 기자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폐현수막 재활용 높이기 나서

선거용 폐현수막 선풍기커버로 재탄생 200장을 제작해 5월중 읍면동에 배부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 발생한 다량의 폐현수막을 재활용(업사이클)해 선풍기 보관 덮개를 만들어 배부한다고 밝혔다.

현수막은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같은 합성섬유로 제작되어 장바구니 또는 마대자루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일부에서는 장바구니 등으로 재활용하고 있지만, 순천시 업사이클센터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 보관 덮개를 제작하는 아이디어를 실행해 폐현수막의 활용도를 높였다.

수거된 폐현수막은 순천시 업사이클센터 생산동(순천시 해운길35, 생활폐기물 매립장 내)에서 각목과 끈을 분리하고 세척작업을 거쳐 ‘폐현수막 재활용 공예’를 수료한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순천시 꾸미봉사단(회장 최희숙) 10여명이 재능기부로 제작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선풍기 보관 덮개 200장을 우선 제작해 5월중 읍



면동에 배부하고 제작과정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 교육용으로 활용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며 “분리된 각목은 관내 광고사에 제공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꾸미봉사단 최희숙 회장은 “현수막 사용을 자제하는 게 쓰레기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지만 이미

발생한 폐현수막의 활용도를 높여 버려지는 것을 최소화하는 노력에 많은 시민들이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0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순천/최희숙 대기자

여수, ‘친환경농업단지 첫모내기’

여수시는 8일 소라면 대곡마을 친환경 경유기벼단지에서 풍년농사를 기원하는 올해 첫 모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모내기 행사는 권오봉 여수시장, 농협중앙회여수시지부장 및 지역 농협조합장과 농업인 단체 대표 등 친환경 농업인 60여 명이 참석했다.

권 시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도 중요한 식량자원인 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 지역의 모내기 작업이 순조롭게 이뤄져 모든 농민들이 모처럼 풍년을 맞보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영농시기에 맞춰 쌀 안정생산에 필요한 각종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코로나 19와 고통화에 따른 농촌인력 부족 현상 해결을 위해 농촌인솔동기 활동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여수형 친환경농업’을 집중 육성하고, 친환경 인증농가 생산장려금 등 16개 분야에 46억 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 실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여수/김상면 기자

여수시, 배수지 가압장 물탱크 청소 지역 ‘단수’

13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30일간 문자메시지, 유선방송, 마을방송 홍보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오는 13일 종화·수정배수지를 시작으로 다음달 11일까지 30일간 관내 42개소의 배수지·가압장 물탱크 청소와 소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부 배수지의 경우 단수가 불가피해 11개 지역 약 3,185세대가 단수될 예정이다.

단수 일정은 ▲5월 13일(09:00~12:00) 자산공원 밑 일원, ▲23일(09:00~15:00) 현암도 서관 일원, ▲24일(15:00~18:00) 만흥, 오천 일원, ▲25일(09:00~13:00) 계동마을 일원, ▲28일(09:00~18:00) 서강, 광무 일원, ▲30일(09:00~13:00) 국동주택단지 일원, (13:00~18:00) 구봉중학교 뒤 일원, ▲6월 3일(09:00~13:00) 두암택지 일원, ▲4일(15:00~18:00) 향일암대표소 일원, ▲5일(09:00~13:00) 무지개아파트 건너편 일원, ▲6일(13:00~18:00) 문자마을 일원이다.



여수시는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단수 세부일정을 게시한다.

또한 단수지역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 발송, 마을 방송, 방송 자막 홍보 등 단수 사전 안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비상용 물을 충분히 마련해 놓는 등 단수대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시민여러분의 많은 양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배수지 청소·소독은 수도법 등 관련법에 따라 매년 2회(상·하반기) 시행하는 법적사항이다.

여수/김상면 기자

보성군, ‘공익직불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6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된점 보완

보성군은 다음달 30일까지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농지 소재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가 밭농사보다 논농사를 우대하고 0소농보다 대농에 유리하게 설계된 점을 보완, 쌀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면적직불금과 경작면적이 0.5ha이하인 농가에는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으로 나누어 지급된다.

경작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은 △진흥지역 내 논·밭, △진흥지역 밖 논, △진흥지역 밖 밭 등 3개 지역,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 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나눠 지급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면적

0.5ha이하,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지 소유면적 1.55ha미만, △농촌지역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농업 및 종합소득금액 2,000만원 미만,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미만, △기타 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시설재배업 3,800만원)미만 등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 경작자,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전업농육성대상자 등이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환경생태·공동체·먹거리안정 등 5개 분야 17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 지급된다.

공익직불제 신청자격과 지급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지소재지 읍·면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김정필 기자

구례군,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하세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대상
폐렴구균 예방접종 무료 실시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대상자는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5년 출생 어르신 및 66세 이상 미접종자로,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폐렴구균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은 1회 접종만으로 폐렴구균 감염에 대한 심각한 합병증을 효과적으로(50~80%) 예방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발표에 의하면 “코로나 19는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진행될 땐 폐혈증이나 급성호흡곤란증후군과 같은 폐렴의 합병증으로 면역저하 상태가 되면 서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폐

렴구균에 대한 예방접종은 필수적으로 해야만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례군보건의료원(원장 김형진)은 “폐렴구균 예방 접종은 독감처럼 매년 맞는 게 아니라 1회 접종으로 예방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구례군 보건의료원 예방접종실(061-780-2039)로 문의하면 된다.

구례/김윤철 기자

담양군,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 지정



담양군은 새로운 성장과 도약 발판 마련
인문학 교육에 미래 경쟁력 강화

담양군은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 제48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담양 인문학교육특구에서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특구로 변경 지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계획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여기에 선택적인 규제특례를 적용, 특화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로 2004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담양군은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바탕으로 특구의 명칭을 담양 전통정원 특구로 지정해 지난 2018년부터 주민공청회, 군의회 의견 청취 등의 과정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특구 지정을 제안했으나 일자리 창출 및 대규모 산업화 위주로 특구를 지정한다는 정부방침을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 면담과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 소재 산업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발굴했고, 인문학과 전통정원의 시너지를 통한 정원 산업 발전과 관광소득 창출을 위해 수차례 규제특례사항을 보완, 마침내 중소벤처기업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군은 인문학교육에 전통정원 특화

사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인문학에 생태와 자연을 의미하는 전통정원을 융합해 역사와 문화예술, 생태환경과 인문학 교육의 조화를 통해 담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발전의 신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개 특화사업 8개의 세부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인문학교육 활성화 특화사업에 ▲인문학콘텐츠 개발 ▲인본중심 인문학 계승 발전 ▲인문학 융복합 활성화 ▲인문학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성됐으며, 전통정원 관광자원화 특화사업은 ▲전통정원 문화 공간 확충 ▲전통정원 운영 활성화 ▲정원전문인력 양성 ▲정원 산업 육성 및 상품화 사업 등이 추진된다.

군은 이번 특구지정을 통해 2024년까지 1,373억 원의 생산유발과 약 1,027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형식 군수는 “이번 인문학교육·정원 특구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브랜드 가치 향상, 관광수입 증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 등 미래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지정과 함께 생태도시의 강점을 활용한 담양식 그린뉴딜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담양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담양/김용희 기자

조선왕가 전주 이씨 가문 역사 ‘한눈에’ 모아

전주시가 조선왕조 태동 시기 전주 이씨 가문의 역사가 담긴 전시회를 연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한옥마을역사관 기획전시실에서 ‘오얏꽃 사람들, 전주 한옥마을에 깃들다’라는 주제로 전주한옥마을의 태동과 전주 이씨 문중을 조명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자만마을에 터전을 삼아 거주했던 옛 전주 이씨 사람들의 삶을 조명하고, 조선왕조가 태동한 왕실의 분향인 전주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전시내용은 △오얏꽃 사람들, 자만마을에 터를 잡다 △전주 한옥마을 속 전주 이씨 사람들 이야기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전주 이씨 사람들 이야기 등 3개 분야로 나눠 구성된다.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 전복지원(지원장 이준기)이 소장중인 족보와 제기, 제례 사진 등 자료와 김진돈 전라금석문연구회장이 소장중인 창암 이삼만 선생과 효산 이광렬 선생의 서예 작품 등 50여 점이 전시된다.

또한 △자만마을에서 대대로 살아왔던 전주 이씨의 계보 △한옥마을에 거주했던 한옥마을 역사의 이야기 △경전전·조경도 등에서 진행되는 대제 등이 소개된다. 이와 함께 이번 전시회에서는 오목대 사진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과 이화문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체험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전통문화도시답게 여행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한옥마을역사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주 최씨’, ‘수원 백씨’, ‘전의 이씨’ 등 문중 관계자들과 협의해 더 많은 이야기를 발굴해 전시할 예정”이라며 “이번 전시가 전주한옥마을이 품어 온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세상을 바꾸는 금융



세계가 주목한 대한민국 뒤편 국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선거를 치뤄내고 20개국 정상들이 앞다투어 노하우를 배우려 하는 나라 모든 하늘길이 막혔어도, 예외적으로 입국허가를 받는 나라 그 뒤편, 국민이 있습니다

더 필요한 이웃을 위해 마스크를 양보하고 따뜻한 기부와 자원봉사의 행렬이 끊이지 않는 국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함께 헤쳐나가는 국민의 모습이 70억 세계인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자랑스러운 국민 곁에 KB금융그룹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순천시, 시민이 직접 나서 '생태도시 조례' 만든다

시민 546명 조례 제정관련 정책토론 청구

5. 12.(화) 시청대회의실 토론회 개최

순천시(허석 시장)는 시민이 직접 만드는 '생태도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12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순천시민 546명(대표 신태래)이 제출한 '순천시 생태도시화 시민참여 조례'에 관한 정책토론 청구서에 대한 응답으로 마련됐다.

시민들은 정책토론 청구사유로 순천시가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 삶과 생활패턴까지 생태적으로 변화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토론 개최 여부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 2월 28일 순천시 시정조

정위원회를 개최해 안전을 심의하고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개최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토론회는 김석 순천YMCA 사무총장 사회로 동부지역사회연구소 장재열 소장의 기조발제에 이어 참여자 릴레이토론, 임시 추진위원회 구성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릴레이 토론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방향, 조례에 담을 내용, 시민 추진위 구성 방법, 각계각층의 시민참여 확산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된다.

또한 현장에서 구성 예정인 임시 추진위원회에서 토론회 이후 각계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의 손으로 조례 초안을 만들어 범시민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통해 올해 하반기에 순천시와 순천시의회에 전달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부서에서는 도시 미래를 위해 시민이 직접 나서 '생태도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생태수도 순천 완성의 의미있는 역사가 되고, 직접 민주주의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추진되는 생태도시 조례 제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생태도시 기반을 단단히 하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3E 프로젝트(교육, 생태, 경제 선 순환)로 세계적인 생태경제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생활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토론 참석자 전원에게 방역 마스크와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



집을 적용해 토론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순천/최희자 대기자

여수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 대박 예감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야간 테마 코스 시티투어 낭만버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가 지난 8일 첫 운행을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버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시티투어와 뮤지컬, 문화해설, 버스킹이 어우러진 이벤트형 테마버스로 11월 중순까지 여수밤바다를 누빌 예정이다.

세 요정(시간의 정령, 약기의 정령, 마법의 정령)이 낭만버스에서 벌이는 사랑이야기를 주제로 낭만 버스커가 생생한 뮤지컬 공연과 트럼펫 연주 등 공연을 펼치며 관객과 공연자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한다.

또한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한다. 가족, 친구, 연인에게 미안함과 고마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세레나데, 낭만여행 보내기와 여수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여수퀴즈광판,

SNS 탑승후기 이벤트도 실시한다. 탑승 소감을 개인 SNS와 블로그 등에 올린 후 주소(URL)를 여수관광문화 홈페이지(<http://tour.yeosu.go.kr/>)에 올리면 선정을 통해 상품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을 달리는 버스커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저녁 7시 30분에 이순신광장을 출발해 2시간 동안 소호동동다리, 돌산대교, 거북선대교, 중포해양공원와 같은 여수 대표 야경명소를 누빈다.

탑승 예약은 시 홈페이지 OK 통합예약포털(<http://ok.yeosu.go.kr/>)에서 가능하며, 요금은 성인 2만원, 경로·장애인·군인·학생 1만원이다. 여수시민은 50% 할인받을 수 있다.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을 철저히 추진해 탑승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상면 기자

코로나19로 운영 멈춘 전주시 공공시설 재개장!

시립·공립도서관, 자전거대여소 운영 재개 전주동물원, 자연생태관, 체육시설 20일

전주시가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발맞춰 도서관 등의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시설과 동물원, 야호 아이숲 놀이터, 실내체육시설 등의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개학이 시작되는 오는 20일부터는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전환과 초·중·고교의 등교개학 시행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운영을 중단했던 공공시설을 순차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개방형 창의도서관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가 추진되는 삼천도서관을 제외한 전주시 11개 시립도서관과 29개 공립작은도서관은 이날(8일)부터 시민들의 도서관 대출과 반납이 가능하도록 자료실을 부분 개관했으며, 97개 사립 작은도서관은 11일부터 시설 운영이 재개될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수가 밀집된 공간에서 모이는 열람실과 동아리실 등은 운영하지 않는다. 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발열체크 결과 37.5°C 이상인 경우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전주시립도서관은 운영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전체 도서관에 대한 방역을 실시했으며, 매일 이용자 방역력 작성과 이용자

간 종료 후 도서관 소독을 꾸준히 실시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 8개 공영자전거대여소도 이날부터 시민과 여행객의 이동편의 등을 위해 운영이 재개됐다.

이와 함께 시는 각급 학교의 등교개학일인 오는 20일부터는 야호학교, 평생학습관, 5개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8개 야호 아이숲 놀이터, 3개 유아숲체험원, 어린이 교통공원 등 아동·청소년 시설을 운영키로 했다.

전주동물원도 동시관람인원 5000명 제한을 조건으로 이날 재개장하며, 자연생태관도 전면 개장한다.

화산체육관과 승마장, 게이트볼장, 덕진배드민턴장, 한바탕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빙상경기장, 완산·덕진수영장, 아울림픽국민체육센터 등 실내체육시설도 스타의실·사위실·체력단련실 이용자제 △방문일지 작성 △동시간대 입장객수 제한 등을 조건으로 20일부터 재개관할 예정이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됐던 시민들의 삶과 일상이 공공시설 운영 재개를 통해 회복되길 바란다"면서 "무엇보다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설별 마린될 운영수칙과 안내요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 주시고, 시설 이용 시에는 개인위생 수칙과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영암, '청소년 안전체험 프로그램' 수련활동 인증!



전문적 청소년안전체험 프로그램 제공 정부 제2307A01A-09218호로 인증

영암군은 청소년수련관에서 각종 재난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운영중인 '청소년 안전체험 프로그램'이 정부로부터 제 2307A01A-09218호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는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청소년 수련활동을 심사하고 인증하는 제도로 청소년 활동인증위원회의 심사 및 심의, 이행심사 확인 등 까다로운 인증심사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해당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안전한 환경과 전문적인 지도자를 갖춘 영암군청소년수련관에서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안전 프로그램은 먼저 응급처치와 소화기사용법과 심폐소생법을 배우게 되며, 화재연기 대피체험, 평가와 마무리 순으로 구성되며 총 3시간으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각종 재난재해 대비 상황이 실생활에서도 많이 발생하여 안전에 대한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된다"며, "앞으로도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안전체험관을 통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홈페이지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참여 기록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개인 포트폴리오를 작성해 참가활동을 관리할 수 있다.

영암/이영석 기자

무안군, 학교·유치원에 친환경 살균소독수 지원

무안군(군수 김 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방역 체계인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있을 단계적 개학에 대비하여 관내 학교·유치원에 친환경 살균소독수(차아염소산 나트륨수)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지난 8일 (주)디엔디전자(대표 서순기)로부터 친환경 살균소독수(20L) 200통을 기탁 받았으며, 기탁 받은 살균소독수는 전라남도 무안교육지원청을 통해 관내 학교 34개소와 유치원 5개소에 배부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요양기관, 종교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등 집단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생활방역을 위해 순차적으로 살균소독수를 배부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 산 군수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지만 절대 방심하지 않겠다"며, "우리 군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군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판국 기자

세계연합신문		서울포커스	http://wunionnews.com/
회장 송원기	발행·편집인	추교진	인쇄인 현재오
대표전화 : 1899-2026	팩스 : 02-558-2289	E-mail : mbc0300@gmail.com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42			
2019년 10월 15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34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코로나19

함께 이겨낼수 있습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www.adparkcom.kr

“아직도 홈페이지가 없으세요?”



지금은 **온라인 마케팅** 시대!

카드록도, 전단지도, 신문광고, 잡지광고, 지하철광고...
모든 광고는 결국,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어집니다.

왜? 홈페이지가 필요할까요?

요즘 누가 광고만 보고 만나?

요즘처럼 경쟁이 치열한 시장환경 속에서 **홈페이지가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건 하나 살 때도 ‘폰’을 꺼내서 **인터넷**에 먼저 검색해 보는 세상, 그런데 아무 정보도 없다면, 사람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생각할 겁니다.

첫째,

이 회사는 인터넷도 안하는,
시대에 뒤쳐진 회사이구나...

둘째,

이 회사는 생긴지 얼마 안됐나?
그렇다면 체계도 엉성한 거 아냐?!

2020년을 살고 있는 지금,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디자인+인쇄+홈피+광고+CI, BI. 원스톱 서비스

www.adparkcom.kr

PACKAGE 기업 및 브랜드 디자인 패키지 시스템

인쇄 + 디자인

홈피+기획, 디자인

광고 + 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A

PACKAGE Basic — ₩ 5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3종 + 템플릿 홈피 + 기본간판

B

PACKAGE Economic ₩ 1,000,000
CI, 또는 BI, 기본형 + 홍보물 5종 + 일반형 홈피 + 사인시스템

C

PACKAGE Premier — ₩ 2,000,000
CI, 또는 BI, 기본, 응용형 + 홍보물 7종 + 기업형 홈피 + 사인시스템



애드파크
adpark communications

성공 비즈니스, 전략적 마케팅을 위한 -
기업 이미지 메이킹업!

CONTACT US 031-904-8805
tgpark2043@naver.com 010-7591-7149

문기주
경제칼럼



▲문기주 대표회장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식량난 도래 가능성'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국가가 33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북한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 10개국이 포함됐다. 남미엔 6개국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49개국에선 약 2억1,200만 명이 고질적인 식량 부족을 겪고 있으며, 그 가운데 9,500만명은 극심한 식량 부족 상태에 직면하여 있다.

● 식량증산 복병 '기후 변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은 '식량'이다. '석유, 금융, 부동산, 제조업' 등 경제적 위기는 고통을 감내하면 되지만 먹지 않고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세계식량계획(WFP) 위관(Josttle Sheeran) 사무총장은 지금의 식량위기를 '침묵의 쓰나미'(a silent tsunami)라고 비유했다. 엄밀히 말하면 '식량 쓰나미'는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그 피해의 심각성과 범위는 자연의 쓰나미 이상이다. 2,000년대를 기준으로 전 세계 식량의 총생산량이 총소비량보다 낮아,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이전까지는 세계 총생산이 총 소비보다는 많지만 빈곤국 및 빈곤층의 식량부족과 기아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었던, 소위 '상대적 식량위기'의 시대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로는 생산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하는 절대적 식량위기까지 겹치게 되었다. 따라서 곡물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가격상승에 따른 공급증가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10%의 가격상승이 불과 1~2%의 공급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것은 바로 기후변화이다.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난화가 밀과 옥수수 생산량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이는 곡물이 인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결과 평균기온이 20세기보다 2도 이상 상승할 경우 2030년 이후 밀 생산량은 10년마다 2%, 옥수수 생산량은 1% 감소하며 수자원 확보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전 세계 5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사막화되는 지역에 살고 있고, 토지는 빠르게 유실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극단적인 기상 이변을 일으켜 식량 생산에 어려움을 초래하면서 이미 전 세계 인구의 10% 이상이 영양실조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기상 이변, 지구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해 주 곡물산지의 기상 여건 악화도 식량위기를 부채질한다. 기후변화는 생물 다양성, 인류의 건강, 식량 생산을 악화시킨다. 토지의 변화는 폭염, 가뭄, 호우 등 극한 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 지속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 한국도 식량위기 '무풍지대' 아니다.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011년 기준 22.6%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식량 해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다.

곡물 중에 쌀 비중에 여유가 있을 뿐이다. 그 외에 모든 식량은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연간 밀가루 소비량은 180~190만 톤인데 이 중 99%가 수입이다.

국립식량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곡물 수요는 지난 40년간 2배 증가한 반면 농업 인구는 85% 줄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수입량은 7.4배 늘었다. 2017년에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4% 증가했지만 국내 곡물 생산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6.2% 감소했다.

사료용 곡물 소비를 제외한 식량자급률 역시 49.8%(2017년 기준)에 머물고 있다. 식량 자급률이 104.7%인 쌀을 제외하고 보리(24.6%), 콩(24.6%), 밀(1.8%), 옥수수(3.7%) 등 나머지 곡물은 식량 자급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더욱이 그간 한국의 농경지 면적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바다의 간척 사업 등으로 늘어났지만, 그 이후에는 공업화와 도시화의 진행으로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1975년 224만 ha였던 전국의 경지면적은 2014년 170만 ha로 40년간 약 24% 줄어들었다.

이는 식량 경작지로 확대할 수 있는 유향 농토가 계속하여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식량안보' 전방위적 대책 서둘러야

식량자급률이 23%에 불과한 한국

의 입장에서 현재의 식량위기가 지속된다는 것은 큰 재앙이다.

에너지와 식량가격이 급등할 경우 국내에 미치는 악영향은 일본의 무역보복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국제곡물시장은 기본적으로 가격변동이 심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근본적 이유는 생산량 중에서 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율은 10~12%에 불과하기에 위기에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취약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식량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농산물무역의 자유화를 주장하던 곡물수출국들이 수출을 제한하는 모순이 연출되고 있다.

미국도 국내공급 부족시 행정부는 국내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수출제한을 할 수 있도록 수출관리법을 '우루과이라운드' 이전에 이미 준비해놓았다.

식량위기와 가격폭등은 장바구니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가중시킨다.

이 때문에 빈곤층이나 저소득계층은 상대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먹거리의 양극화가 발생하고, 이는 질병과 건강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 의료비용의 증가를 가져온다.

이미 우리 곁에 일상으로 자리잡은 식량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은 먹거리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이다.

생산자인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고 영농이 지속가능하도록 소득과 가격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날로 심화되는 수출국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품목별로 3~4개국 정도로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일도 중요하다.

국가적인 농업정책 역시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

농업 전반을 농업인들에게 맡겨 놓기보다는 국가가 책임감을 갖고 바이오톱, 순환 농업 등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농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식량주권,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정책과 제도 역시 중요하지만 국민도 공동 생산자라는 인식을 갖고 지역먹거리(로컬푸드), 도시농업, 도농공동체 등과 같은 새로운 대안적인 영농 활동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사설

위기 깊어지는 수출과 재정 상태

코로나19 충격에 수출이 반토막 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46.3%나 급감했다.

감소폭은 반도체·반기업 정책 총격을 받은 지난해 2월 이후 최대로, 2016년 4월 이후 역대 두 번째다.

수출 감소폭이 지난달 초순 -18.6%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수출 위기는 전면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력 수출산업은 초도화되다시피 해 승용차는 -80.4%, 석유제품은 -75.6%를 기록했다.

미국·유럽연합(EU)에 대한 수출은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기업 위기는 지금부터"라는 분석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 엔진이 꺼지면 위기는 전방위로 번진다.

자급 여력이 없는 대기업과 협력업체는 파산 문턱을 넘나들게 된다. 그 여파는 일자리 증발, 소득·소비 감소, 성장률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는 수출에서부터 터지기 시작한 것이다.

더 큰 걱정은 위기가 커지는데, 재정이 벌써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국채와 공공기관의 특수채 발행 잔액은 지난 8일 현재 1098조

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00조원에서 100조원 더 늘어나는 데 3년 1개월이 걸렸지만, 1년 2개월 만에 또 100조원이 늘어난 것이다.

세수부족 상태에서 '포퓰리즘 빛살포'를 하면서 나라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30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마지노선인 40%를 넘어 45%선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국가채무비율이 46%에 이르면 신용등급 하방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재정이 무너지면 위기 대응 능력을 상실하고, 나라경제는 위태로워진다. 수출을 보나, 재정 상태를 보나 위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에 채워진 '반기업 족쇄'부터 풀어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반기업·친노동 규제를 그대로 두고 기업이 안전할 것으로 기대하는 건 연목구어에 진배없다.

빚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재정정책도 수정해야 한다. 재정을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해야만 위기에 대응할 힘을 비축할 수 있다. 수출 붕괴에 재정까지 무너지면 재앙은 막을 수 없다.

시민단체 최상 덕목은 도덕성·투명성이다

일부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비판에 대해 정의연이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정의연은 "2017년부터 3년간 일반 기부수입 22억1900만원 중 9억1100만원(41%)을 피해자 지원사업비로 집행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지원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에게 전달하는 사업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치료지원, 쉼터지원 등에 사용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017년 한·일 위안부 합의로 설립된 화해치유재단 지원금을 거부한 할머니에게 8억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후원 물품, 비정기적 생활 물품 지원 등에 쓰였다는 것이다.

사업별 지출내역을 제시하며 '유용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의연은 "어느 NGO가 기부금 내역을 살살이 공개하느냐. 기업에는 왜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가혹하다"며 세부 지출내역 공개는 거부했다.

정의연의 기부금 절반 정도가 용도가 정해진 '지정기부금'이지만, 이 할머니 주장대로 다른 사업에 들어간 내용이 많은 건 문제다.

회계와 수혜자 작성 등 서류 처리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도 시인했다. 2015년 일본의 10억엔 출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의연은 "언론보도를 통해 거론된 것"이라며 부인했다.

이 와중에 고 김복동 할머니가 2016년 재일조선학교 학생에게 써달라며 기부한 장학금을 나눠먹기 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해와 올해 200만원씩 받은 대학생 35명은 민노총, 진보연대 등 시민단체 간부 자녀나 활동가 자녀였다. '김 할머니 유지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김 할머니의 유언장이나 공증내용 등 증빙 자료를 공개하진 않았다.

시민단체가 갖춰야 할 최상의 덕목은 도덕성과 투명성이다. 위안부 문제는 민감한 외교 사안인 만큼 신속하게 의혹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정의연은 위안부 할머니에게 생활 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지장·도장까지 받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 기업과의 형평성을 거론할 필요 없이 '활동 전반'으로 몽땅그린 사업별 지출 내역이 아닌 세부 내역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다함께! **다같이 [가치]**
대한민국의 가치를 같이 높이는 한전KPS의 기본 좋은 상생프로그램입니다. 패러데이 스쿨 편

www.kps.co.kr

국가 산업기술의 뿌리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Perfect & Pride

★ **대한민국의 별을 키우겠습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야"

전국 마이스터고 학생들을 응원합니다!
'KPS 패러데이 스쿨' 차세대 기술명장 1,000명 육성

패러데이 스쿨 : 한전KPS의 사내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현장 기술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기술인력 1,000명을 육성하기 위한 산학 상생 프로그램

한전KPS 주식회사

한전KPS가 하는 일
• 발전플랜트 설비 진단 및 성능개선 • 국내발전설비 정비 • 해외발전설비 운전 및 정비 • 신재생설비 정비

기획 특집

함께 가꾸는 희망도시 경기 의정부! 시민 행복지수 UP!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사업 시행

경기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0년 '함께 가꾸는 희망도시 의정부! 시민 행복지수 UP!'이라는 비전하에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우수 사업을 지역특성에 반영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시는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모든 대상자들에게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적정서비스 연계 및 생활 지원을 위해 2019년 10월부터 동별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고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관련 정보들을 종합적으로 제공·지원하고 있으며, 노인종합복지관 및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기관을 통한 돌봄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함께사는살터를만드는 커뮤니티케어지원

- 권역 단위 커뮤니티 케어 통한 서비스관리 체계화

커뮤니티 케어는 정부의 복지정책 방향인 포용적 복지의 구현방안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체계이다.

정신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이용자 증가

의정부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 통합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 및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결과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시설 이용자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년 증가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전달체계 구축

- 아동돌봄 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의정부시는 지역중심 돌봄 협력체계를 통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만6-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구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민락LH 브라운빌리지)를 개소했다.

아울러 올해 중으로 지역사회 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사업 및 노인 건강관리 지원 확대를 통해 정신건강 관리

또한,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서도 다방면으로 힘쓰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에는 자살위험군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지지, 지속적인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고, 10,043명을 대상으로 자살고위험군 발굴을 위한 게이트키퍼 양성 및 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인건강관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찾아가는 독거노인 건강관리서비스 및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와 자살 예방사업을 통해 의정부 시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터 조성 및 감성을 키우는 문화여가 향유권 보장

- 어린이안전시스템 강화를 통한 어린이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

의정부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환경 실태조사 후, 119건에 대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실시하고, 민·관·경이 함께 합동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세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각 학교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집, 유치원의 적극적인 교통안전 캠페인 및 안전상태 모니터링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험요인에 대한 의견 제시를 통해 민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단속장비 100%설치 ▲불법노상주차장 전면폐지 ▲보차도경

계속 노란색 도색 등 시인성 강화 교통안전시설 설치 ▲통학로 확충 ▲민·관·경 T/F팀 구성 및 운영 ▲어린이 보호를 우선하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홍보 강화의 6대 기본방침을 발표하고, 범시민 문화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어린이 보호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로 삼고 올해를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삼고자 선제적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문화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도심 속 힐링문화쉼터 조성에 노력

문화 환경 만족도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와 도시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문화의 경쟁력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차원에서 의정부시는 지역 내 쇠퇴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2019년 국내 최초의 미술도서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발곡근린공원 내 발곡음악도서관(가칭)을 개관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공간 및 문화쉼터 조성을 위해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2019년 11월에 경기도 승인이 완료되었으며, 2020년에는 흥선행복마을 내 문화쉼터를 조성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조성될 계획이다.

시민의 자아실현을 위한 일자리 복지 구현

- 중장년층 맞춤형 일자리사업 활성화 및 장애인 고용창출 확대를 통한 사회활동 지원

의정부시는 일할 의욕이 있는 중·장년층 및 장애인에게 실질소득 확대와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일하는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단순 노무직 또는 비숙련의 일자리가 아닌, 일정 수준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지역 내 민간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경비인력 이수증 취득과정, 건물위생관리원 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증반 등 장년층 취업 지원사업 및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일자리 복지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 맞춤형 취업·창업 지원 확대를 통한 인력 양성

의정부YWCA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평생교육센터 등을 통해 자격증 취득 및 취업연계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경력맞춤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연계하고, 여성의 특성에



맞는 미래형 일자리 개발 제공을 통해 여성의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역량 강화 및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와 연계한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생활과 밀착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더불어 복잡·다양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연계·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의정부시의 탄탄한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승근 기자



SAMSUNG



삼성 제트와 함께라면 우리집은 언제나 깨끗

댕댕이와 신나게
뛰놀고 들어온 날에도

삼성 제트만의 필터시스템으로
흡입한 미세먼지는 99.999% 배출차단하고

청소 후, 먼지통은 청정스테이션에서
미세먼지 날림 걱정없이 비워주니까

삼성제트



청정스테이션

우리집 맑음 가전
삼성가전